

전주 생태도시 6대 역점시책 제시

사람중심의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녹지 공간
따뜻한 삶 있는 주거환경
조화로운 도시개발
걸으면 행복한 도로

전주시는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생태도시 분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추진전략은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녹지 공간 조성 △상생과 배려의 따뜻한 삶이 있는 주거환경 조성 △전주형 주거복지 실현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개발 △걷고 싶은 도로, 걸으면 행복한 도로 만들기 등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역사도시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연구방향에 맞춰 자연과 역사, 문화적 특성 보전이 고려되고 시민의 공감과 합의에 기반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전주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추진, 덕진공원에 유류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인 '덕진공원 키즈 플레이 그라운드'를 조성한다.

동시에 민간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자문·검토해 관리비용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지문단'을 운영, 공적임대주택 및 노후주택 개보수 등 사업추진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는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재능기부' 제도를 운영한다. 또 사람중심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상업지역 활성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테마공간을 조성하는 '전라감영 옛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도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온 부서별 핵심 사업들도 구체화한다. 대표사업들은 건지산 도시숲 복원을 위한 생태도로 조성 및 도심녹지 가로숲을 조성하는 '도시숲 광대역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과 자체관리 능력이 부



쌀 산업 지속 결의 리승용 농촌진흥청 청장이 6일 전북혁신도시 농업과학도서관에서 '3저(低)·3고(高) 운동 현장실천 결의대회'에서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피켓을 들고 쌀 산업 지속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 = 농촌진흥청 제공)

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지문단'을 운영, 공적임대주택 및 노후주택 개보수 등 사업추진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는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재능기부' 제도를 운영한다. 또 사람중심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상업지역 활성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테마공간을 조성하는 '전라감영 옛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도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온 부서별 핵심 사업들도 구체화한다. 대표사업들은 건지산 도시숲 복원을 위한 생태도로 조성 및 도심녹지 가로숲을 조성하는 '도시숲 광대역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과 자체관리 능력이 부

족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 소외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주거복지 실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해피하우스 사업' 확대 운영,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전사업,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등이다.

특히 전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서민주거복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로 필요한 관리사업비의 70%까지(최고 2000만원) 지원해주는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

업을 통해 올 연말까지 옥상방수와 외벽도색, 담장철거 후 조경 및 지하주차장 LED설치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또 해피하우스사업 지역도 전주시 전체 동으로 서비스가 확대돼 기존 21개동에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12개동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언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2018년은 조화와 균형, 채움과 참조를 통한 사람 중심의 도시 모습을 구체화하는 해"라며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설공단, 설 맞이 종합대책 추진

승화원 설당일 제외 정상운영·덕진공원 개방 등

전주시설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 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설명했다.

종합대책은 △재해재난 취약시설 일제점검 △각종 시설 고객 맞이 준비 △설 연휴 교통약자 특별 수송대책 △저소득 불우 소외계층 위문활동 △설 명절 기간 전 직원 근무기강 확립 등 5개 분야이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설·내외 체육시설은 설 당일에만 휴장하고 설 절일은 화산체육관, 인라인롤러장, 빙상경기장은 오후 6시에 폐장한다. 덕진수영장, 덕진 실내 배드민턴장, 덕진·완산·아중 체력공원은 오후 5시에 폐장한다.

승화원은 설 당일 화장을 중지하며 나머지 기간은 정상 운영한다.

종합경기장, 덕진공원 등은 설 연휴 기간동안 개방하며 승마장은 15일부터 17일까지 자전거점투장은 15일부터 18일까지 휴장한다.

동물원 주차장, 노송천 공영주차장은 설 연휴기간 무료 개방, 실내체육관 주차장, 한옥마을 노상, 삼천동, 중화산동, 서신동, 건산천1·2 공영주차장은 설 명절 당일에만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정읍서 내연녀 방화치사 60대 검거

살해 후 방화 가능성 제기

정읍경찰서는 6일 현주조건물방화치사 혐의로 A(6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6분경 정읍시 신대인읍의 한 술집에서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붙여 내연녀인 B(47)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에 탄 술집에서 발견된 B씨 시신이 불에 탄 흔적이 없을 뿐더러 정자제로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돼 살

해 후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B씨의 혈액에서 일산화탄소가 발견되지 않았고 발버둥 치는 등의 저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우선 현주조건물방화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현주조건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부검 결과 등에 따라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유아용품 공동구매 사기 30대 주부 구속

유아용품을 공동구매를 통해 싸게 팔겠다고 속여 4억여원을 가로챈 30대 주부가 구속됐다.

원주경찰서는 6일 사기 혐의로 박모(3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A(36,여)씨 등 300여명을 속여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저귀와 분유 등 유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회원들을 끌어 모았다.

회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초기에는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 싼값에 물건을 보내 신뢰를 쌓았다.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박씨는 돈만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또한 유명 증거거래 사이트 등에서도 공동구매 예약을 받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조사과정에서 박씨는 "생활비와 사채 빚 등을 갚는데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기자

"차선 양보 안 한다"며 들이받은 30대 구속

"차선 양보 안 해 준다"며 차량을 들고 도로로 들이받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6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운전자 A(33,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12시47분경 전주시 효자3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진로변경 중 B(34,여)씨가 양보해주지 않

자 목적을 펴보고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앞 범퍼 수리 등 145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진로변경 도중에 양보해주지 않고 가로 막아 왔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기자

다중사용자 인식형 VR체험공간 3월 오픈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최대 4명 VR체험 콘텐츠 확보

전주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VR(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 시민과 관광객에게 서비스 할 예정이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한국전통문화전당 1층 홍보관에 여러 명이 동시에 상호작용 가능한 VR체험 공간을 구축, 2월 중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 중 공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마련된 VR체험존은 여러 사용자가 가상의 공간에서 동시에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다중사용자 인식형 VR체험 장비로 불리는 '프로젝트 앨리스(Project Alice)'가 활용돼 기존 헤드마운트(HMD) 기기를 머리에 쓰는 1인 VR 체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사용자가 동일 가상공간에서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이곳에서는 최대 4명이 동시에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으며 동일한 가상공간에서 사용자끼리 물건을 던져서 주고받거나 함께 공간을 이동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6가지 콘텐츠 체험이 가능하다.

주요 콘텐츠는 △컨트롤러를 통해

'풍선 만들기' 가상공간에서 랜턴을 이용해 관찰하는 '사물 관찰' △우주(무중력) 공간에서 물건을 관찰하는 '우주공간' △컨트롤러를 조준해 풍선을 터트리는 '풍선 맞추기' △자동차 엔진과 부품 등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교육 체험인 '자동차 엔진 분해 및 조립' △'사물 생성 및 주고받기' 등이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다중사용자 인식형 VR체험 장비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위해 VR콘텐츠 개발자를 대상으로 전북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콘텐츠 제작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063-281-4135) 또는 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 송천도서관, 8일 '하브루타' 부모교육 특강

전주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녀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이는 특강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전주시립 송천도서관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도서관 1층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나원중 전주대학교 객원교수의 재능기부 특강을 한다.

이 특강은 '자녀교육'을 특화 주제로 내세운 송천도서관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짝을 이루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공부한 것에 대해 논쟁하는 '하브루타' 교육방법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